최병훈의 작품 - 예술과 디자인 사이의 새로운 길을 창조하다

알렉산더 폰 페게작 **Alexander von Vegesack**
비트라 디자인미술관 관장 **Director, Vitra Design Museum**

디자이너 최병훈을 내가 처음 만난 것은 2006년 동남아시아 여행에서였다. 그때 그는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중 한 사람으로 소개 되었다. 특히 그의 작품 활동 분야가 “가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불현듯 2001년도 Vitra 디자인 박물관에서 개최되었던 Isamu Noguchi의 회고전 작품들이 떠올랐다. 최병훈교수 역시 Noguchi와 마찬가지로 조각과 다자인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두 동양인의 공통점은 유기적이면서도 형태의 단순화를 추구하는 성향과 자연적 요소들을 적용하려는 성향, 그리고 그들의 작품으로부터 우러나는 “거대한 평온함”에 있다고 하겠다.

최병훈 교수의 작품에서 나를 흥미롭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디자인에 있어 항상 본질적으로 대두되는 인간공학이나 합리성에 관한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 한 개의 나무 판재로 앉는 좌판과 등받이, 그리고 다리를 이루는 안락한 의자 형태에 어떻게 접근하고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모든 논점들을 한마디로 아우르면서 그의 작품 세계를 집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상위 개념이 있다면 바로 “균형”이라고 하겠다. 감상자에게 대두되는 “균형”에 관한 것은 나의 견해로 볼 때 작품들을 형성하는 재질들의 구조나 구성들 간에 생성되는 일종의 “장력” -가벼우면서도 휘어지고 마치 떠오르는 듯한 느낌의 목재와 균일하게 다듬어진 육중한 돌 사이의 “장력” 그리고 한 사물의 양감과 그의 빈 곳이 만들어내는 음감사이의 “장력”-으로 대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장력”은 우리가 흔히 말해오든 예술과 디자인 사이의 장력을 통한 균형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의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기능과 형태 사이에 장력은 일반적으로 “예술이냐 아니면 디자인이냐”라는 상투적인 콘텍스트를 훨씬 넘어설 정도로 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여러 영역을 넘나드는 현상들은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더욱더

빈번하게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여러 활동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술과 디자인 또는 건축이라는 영역간의 “장력의 장”에 우리들이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에 드러나는 재료와 형태 또는 그 범주들이 만들어내는 장력은 절대로 긴장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나 편안하고 여유가 있으며 그리고 매우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성향이 Noguchi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것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Noguchi 스스로가 말했듯이 예술과 디자인을 구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구분은 작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거나 지각하는 데에는 하나의 장애요소인 것 분명하다. 바로 여기 극동 아시아지역에서는 어떤 범주들의 구별을 초월하는 이른바 “제3의 방식”을 그들의 일상생활과 문화 속에서 나는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곳의 예술가, 디자이너 그리고 문화학자들 역시, 디자인 속에서 예술을 볼 수 있고 또 예술 속에서 실용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더 진실되고 창의적인 것이라고 항상 말해주고 있다.

디자인이라는 맥락에서 거론되는 현대 작가들, 가령 훔베르토(Humberto)와 페르난도 캄파냐(Fernando Campana) 형제, 그리고 위르겐 베이(Jürgen Bey) 등이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안드레아 지텔(Andrea Zittel), 아이 웨이웨이(Ai Weiwei) 등의 작가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최병훈 교수 역시 이러한 담론 속에서 하나의 강력하면서도 서정적인 목소리를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008. 06